

【별표 3】

## 국외출장계획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관련사업 (예산항목)	<input type="checkbox"/> 출장목적 : 북극프론티어 참석 및 정부대표단 지원, 북극프론티어 사무국, AEC(북극경제이사회), NPI(노르웨이 극지연구소) 등과 업무협약 <input type="checkbox"/> 관련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KMI 일반사업)</li> <li>「2023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KMI 수탁사업)</li> <li>* 체결 시 예산 분할 집행 예정</li> </ul>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출장지 대체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엄지	대한항공 : 0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출장기간	①2023.1.28. ~ 2023.2.5. (7박 9일)		출장지		노르웨이 (트롬쇠)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 업무		항공편	
	1.28(토)	부산→인천→암스테르담	• 항공 이동(12:20~18:30)		• KE 925 • 대한항공	
		암스테르담→오슬로	• 항공 이동(20:35~22:20)		• KE 6433 • 대한항공	
	1.29(일)	오슬로→트롬쇠	• 항공 이동(09:55~11:50)		• SK 4414	
			• 북극권 국가와의 면담 지원 준비		• 트롬쇠 현지 체류	
	1.30(월)	트롬쇠 Clarion Hotel the Edge	• 북극프론티어 참석 (1일차) • NPI(노르웨이극지연구소) 면담 • 노르웨이 북극 대사 면담		• 트롬쇠 현지 체류	
	1.31(화)	트롬쇠 Clarion Hotel the Edge	• 북극프론티어 참석 (2일차) • 북극이사회 사무국장 면담 • 한-싱가포르 북극특사 면담 • Granaefl 사(社) 면담		• 트롬쇠 현지 체류	
	2.1(수)	트롬쇠 Clarion Hotel the Edge	• 북극프론티어 및 극지연구소 부대행사 참석(3일차) • 스코틀랜드 국회의원 면담		• 트롬쇠 현지 체류	

	2.2(목)	트롬쇠 Clarion Hotel the 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북극서클 프론티어 참석(4일차)</li><li>스웨덴 대사 면담</li><li>북극프론티어 사무국 업무협의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트롬쇠 현지 체류</li></ul>	
	2.3(금)	트롬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업무협의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트롬쇠 현지 체류</li></ul>	
	2.4(토)	트롬쇠→오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항공 이동(11:50~13:4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SK 4411</li><li>SK Scandinavian Airlines</li></ul>	
		오슬로→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항공 이동(17:00~18:5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E 6434</li><li>대한항공</li></ul>	
		암스테르담→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항공 이동(20:5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E 902</li><li>대한항공</li></ul>	
	2.5(일)	암스테르담→인천→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항공 이동(~16:4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KE 926</li><li>대한항공</li></ul>	
출장경비	성명	경비총액	경비 부담기관	특이사항	
	김엄지	약 6,786,797원	KMI	항공료	2,788,400원
				일비 및 식비	\$577(729,581원'23.1.18. 환율 기준)
				숙박비	\$184.5*7박=\$1,291.5(1,633,024원, '23.1.18. 환율 기준)
				부산-인천 왕복 교통비	150,000원
				로밍비	60,000원
				여행자 보험비	100,000원
				총회 사전등록비	2,250NOK*3일+2,000NOK*1일 = 8,750NOK (1,145,792원, '23.1.18. 환율 기준)
				선물 구입비	180,000원
				합계	6,786,797원

본 출장은 KMI가 수행하는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 세부 과업 중 북극 국가 협력 사업과 「2023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의 세부 과업 중 국제기구 및 양·다자 협력에 목적이 있음

- 1) 적용기준 : KMI 국외출장여비 규정의 “나(노르웨이)” 등급지 적용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여행자보험, 국내 구간 교통비, 현지 교통비,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4) 현지 총회 참석 KMI 협력기관 선물비 신청 (30,000원x6개 기관 = 180,000원)
- 5) 현지 4회 회의 개최 예정(1월 30일, 31일, 2월 1일, 2일) : 30,000×10명×4회=1,200,000원

\* 예산항목

- (일반)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회의비 (목적: 북극국가 협력사업)
- (수탁) 「2023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사업」(목적: 국제기구 및 양다자 협력)

6)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김엄지	(나)등급 기준, 상한액 1박 \$123 (50% 상한액 적용 시 \$184.5)	\$26X9일 = \$234	\$49X9일 - \$49X2일 = \$343	\$577	식비 6회 차감 (기내식 2식, 회의비 4식)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업무①	<b>북극프론티어 참석 및 북극권 동향 파악</b>
수행계획	□ 북극 프론티어 및 세션 참석을 통해 북극권 국가의 북극 협력·정책·비전 파악 - 북극권 국가들 및 EU의 북극 전략·정책, 우선순위 파악 - 북극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북극 연구 결과 청취 - 러-우 사태 전망 및 북극이사회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파악 - 북극권 친환경 기술(특히 해운·조선 등) 개발 현황 파악
수행결과	□ SESSION 1: NORTH ON THE MOVE - 참석자: ▲H.E. Anniken Huitfeldt, Minister(Foreign Affairs of Norway), ▲H.E. Tobias Billström, Minister(Foreign Affairs of Sweden), ▲H.E. Thórdís Kolbrún Reykfjörð Gylfadóttir, Minister(Foreign Affairs of Iceland), ▲Douglas D. Jone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the bureau of European & Eurasia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Johanna Sumuvuori, State secretary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Silje Karine Muotka, President of the Sami Parliament, ▲David Bal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Arctic Exec. Steering Comm., Office of Science & Tech. Policy, White House - Anniken Huitfeldt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은 북극에서 오해와 의도치 않은 갈등 고조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네트워킹 유지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역내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이 북극을 더 안정적이게 만들 것임을 언급 - 핀란드 의장 하 바렌츠 유로-북극 이사회에서 러시아 없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듯, 노르웨이도 오는 5월 의장국을 이어 작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활동을 하겠으나 회원국 모두와 협력하는 북극이사회 업무 복귀를 이룩하길 희망 - 현 안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극이 사람이 살만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북극은 박물관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이 있는, 에너지 녹색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함을 강조 □ SESSION 2: FOOD ON THE MOVE - 참석자: ▲Bjørnar Skjæran, Minister for Fisheries and Ocean Policy of Norway, ▲Vicki Lee Wallgren, Director, Arctic Programme,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Taylor Holshouser, Managing Director of the Alaska Ocean Cluster, ▲Nils Gunnar Kvamstø,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Norwegian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Alan Haynie, General Secretary for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Kim Gabrielli, CEO of the UN Global Compact Norway, ▲Aaja Chemnitz Larsen, Chair, Arctic Parliamentarians, MP, Greenland/Denmark, ▲Anders Waage Nilsen, Co-Founder, ReSourcer, ▲Sam Tan, Special Envoy for Arctic Affairs of Singapore, ▲Wiktorja Szapocska, PhD Candidate UiB - Bjørnar Skjæran 노르웨이 수산해양정책장관은 러-우 사태의 러시아 책임을 지적하며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전과 같을 수 없지만, 북극 대구 어획량이 가장 높은 바렌츠해의 지속 가능 관리를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언급

- 다른 패널들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정책고려를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충실한 수준의 원주민 참여가 필요하며, 노르웨이의 경우 이를 위해 사미위원회(Sami Parliament) 지원, 정부 및 집권여당 차원의 원주민 협의(consultations) 등 정책 의견수렴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

### □ SESSION 3: MOVING TO AND FROM NORTH

- 참석자: ▲H.E. Jonas Gahr Støre, Prime Minister of Norway, ▲Lisa Murkowski, U.S. Senator for Alaska, ▲Abbie Tingstad, Associate Director of the Management, Technology, and Capabilities Program (MTC) in the Homeland Security Research Division of the RAND Corporation & Codirector of the Climate Resilience Center of the RAND Corporation, ▲Angus Robertson, Cabinet Secretary for the Constitution, External Affairs and Culture of Scotland, ▲Sara Olsvig, Inuit Circumpolar Council Chair, ▲Mia Ahlstrand, Project Leader for the North Sweden Green Deal at Develop Norrbotten, ▲Sigrún Ágústs dóttir, Director of the Environment Agency of Iceland, ▲Tom Einar Jensen, Chief Executive Officer of FREYR Battery, ▲Larry Ibrahim Mohammed, PhD Candidate, UiT - The Arctic University of Tromsø, Norway
- 북극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청년의 이주 문제이며, 공공서비스, 교육 및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
-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북극은 보호하고, 모든 개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강할수록 청년이 북극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구학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

### □ SESSION 4: ENERGY – MOVING TO THE MIXED SOLUTIONS

- 참석자: ▲Andreas Bjelland Eriksen, State Secretary at the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of Norway, ▲Olivia Lazard, Fellow at Carnegie Europe & TED Talk Presenter, ▲Heidi Theresa Ose,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t Store Norske Energi, ▲Heather Shilton, Director of the Nunavut Nukkiqsautiit Corporation, ▲Kjetil Hov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Exploration and Production Norway of Equinor, ▲Chris Rose, Executive Director of Renewable Energy Alaska Project (REAP), ▲Sharla Greenland, Co-Chair of the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Sigurd Enge, Senior Advisor of Shipping for Bellona, ▲James Stockan, Orkney Islands Council Political Leader
- 에너지 안보는 지정학적 이슈와 연관되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
-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안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접근 필요
- 그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삶의 방식, 생물 다양성 등과 에너지 개발 간 갈등이 존재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p>□ SESSION 5: SCIENCE MOVING THE REAL WORL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Mike Sfraga, Chairman of the 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Antje Boetius, Director of the Alfred Wegener Institute, Germany, ▲Chloe Hill, Policy Manager for the European Geoscience Union (EGU), ▲Marianne Kroglund, Specialist Director on Arctic Issues for the Norwegian Environment Agency, ▲Stian Rognlid, CEO of Aquaticode, ▲Ronald Wærnes, Deputy Chairman of the Troms and Finnmark County Council, ▲Anja Márjá Nystø Keskitalo, Advisor EU unit, Saami Council</li> <li>- 북극에서의 정책 의사 결정은 일반적으로 지식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메커니즘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li> <li>- 그러나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과학자, 정책 결정자, 로비스트, 사업가, 원주민 단체 등 북극 안팎으로 유관한 단체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li> </ul> <div data-bbox="327 884 821 1211"> </div> <div data-bbox="847 884 1342 1211"> </div> <div data-bbox="327 1218 821 1585"> </div> <div data-bbox="847 1218 1342 1585"> </div>
<p><b>업무②</b></p>	<p><b>정부대표단 지원</b>(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KMI, 극지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정부대표단 구성 예정)</p>
<p><b>수행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권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북극 양자협의회 개최 지원 및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노르웨이, 한-싱가포르, 한-일(잠정) 협의회 개최 예정</li> <li>-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노르웨이('23~'25)의 의장국 활동 계획 파악</li> </ul> </li> <li>□ 우리나라와 북극권/음서버 국가 간 협력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북극 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공유</li> <li>- 북극이사회 틀 내에서의 협력 추진 가능성 타진</li> </ul> </li> <li>□ 극지연구소 부대 행사 참석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지연구소-NPI 극지연구협력센터 방문</li> </ul> </li> </ul>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Arc-AEC MOU 체결식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르웨이) 차기 회의 시 녹색 해운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양 측 유관 부처 및 전문가를 대동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노르웨이 측도 동의</li> <li>- 참석인원 (노르웨이 측) : Morten Høglund(Norwegian Senior Arctic Official), Knut Seim(Senior Advi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li> <li>- 한국과 노르웨이, 미국 등이 실제 협업할 수 있는 북극이사회 차원 협력 아이템(예컨대 북극 녹색해운)을 미리 탐색하기를 제안</li> <li>- 노르웨이 측은 올해 5월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에 앞서 3월 말 의장국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므로, 차기 양자북극협의회 시점 이전이라도 추가 협의를 해서 본 양자협력 사안이 북극이사회 틀 내에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li> <li>- 제안될 협력 활동의 유형(녹색 해운 공동 조치계획의 발전, 또는 공동 가이드라인 작성, 또는 전문가 참여 심포지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li> <li>□ (스웨덴) 양자협의회 준비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면담 예정</li> <li>- 참석인원 (스웨덴 측) : Louise Calais 스웨덴 고위북극관리(SAO)</li> <li>- 양측은 오는 3월 7일 오후 또는 3월 8일 오전 중 서울에서 제1차 북극협의회 형태의 양자 면담 예정</li> <li>- 스웨덴 측은 Calais 고위북극관리를 수석대표로, 스웨덴극지연구소사무국(SPRS) 소장인 Katarina Gardfeldt 교수와 일부 유관 연구자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꾸릴 예정</li> <li>- 스웨덴 측의 북극해 관통 해저케이블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프로젝트와 구분된 것으로, 그 기초 타당성을 위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공유</li> <li>□ (스코틀랜드) 북부지역 floating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국제협력 필요</li> <li>- 참석인원 (스코틀랜드 측) : Angus Robertson MSP(Cabinet Secretary for the Constitution, External Affairs and Culture, Scottish Government), Craig Smith, Senior Policy Officer, (Nordic and Arctic Unit, Scottish Government), Lynne Dow, Private Secretary to Angus Robertson MSP</li> <li>- 스코틀랜드는 비북극권 국가 중 가장 북극에 위치한 국가로 북극권 국가와 환경이 비슷한 지역(북부지역)을 보유</li> <li>- 북극-북대서양에서 생산된 수소가 스코틀랜드를 거쳐 서유럽으로 건너갈 것이므로 지리적으로 유리하며, 북부지역은 북극과 환경이 비슷함에 따라 풍력발전 환경에 적합하며, 전통적 에너지에서 floating 해상풍력으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li> <li>- 스코틀랜드는 EU 내 최대 원유생산국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국이 되고자 추진</li> <li>□ (싱가포르) ①북극 빙하 면적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 ②북극항로 활성화 시 기존 항로의 물동량 감소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③북극지역의 방대한 자원과 에너지 등 3가지를 북극 이슈로 인식</li> <li>- 참석인원 (싱가포르 측) : Sam Tan, Special Envoy for the Arctic Affairs, Kajie Han, Assistant Director, Europe Directorate(Ministry of Foreign)</li> <li>- 싱가포르의 항만 활동은 GDP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li> </ul>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기존 항로의 경우, 싱가포르항만의 역할이 중간 기착지로 역할이 크나,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싱가포르 항만의 물동량 감소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 필요
- 싱가포르는 북극이사회 6개 작업반 중 4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6월부터 러시아가 불참하는 WG 협력사업에 대한 재개가 발표되었다고는 하나 매우 제한적인 수의 협력사업이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음
- (NPI) 노르웨이 신규 쇄빙연구선 Kronprins Haakon 호는 NPI 소유, 운영과 승조원 관리는 노르웨이해양연구소(IMR), 운항계획 및 연구선 시간 배분은 NPI, IMR, 및 노르웨이 북극대(UiT)가 공동 결정
- NPI는 노르웨이 기후환경부(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소속 국 단위 기관으로 남북극 과학연구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며, 스발바르 등 노르웨이 극지역 관할 관련 과학기반 정책/전략 조언을 생산함. 20개국 출신 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
- 북극해 연구항해는 매년, 남극해 연구항해는 매 4~5년 주기로 시행
- 참석인원 (노르웨이 측) : Ellen Øseth, Deputy Director(NPI), Nalan Koc, Research Director(NPI), Kim Holmen, Special Advisor(NPI), Østen Mortvedt, Chair(Steering committee, Framsenteret Drift AS)



업무③

북극프론티어 사무국 업무협의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놀 60주년을 기념한 북극프론티어와의 협력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협력주간과 연계하여 북극 프론티어 세션* 개최 제안</li> <li>- KMI-북극프론티어 MOU 체결 방안 논의</li> </ul> </li> </ul> <p>* '22.5 북극프론티어: 한-노르웨이 위성행사 개최(서울)</p>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AF MOU 갱신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 MOU 갱신에 동의하며, 초안 검토 예정</li> </ul> </li> <li>□ 한-놀 6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APW)-AF 특별세션 개최 및 정례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 개최 가능하며, 세션의 목적, 참여 인사, 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협의 필요</li> </ul> </li> <li>□ 북극아카데미(KAA) 소개 및 인사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 7월은 여름휴가 기간이라 유럽 인사 섭외 어렵겠지만, 6월이면 가능</li> <li>- (AF) AF 또한 AF 행사 전 일주일 동안 미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추진 중이며, 한국 학생들 참여 독려 요청</li> </ul> </li> </ul> 
업무④	<b>AEC(북극경제이사회) 업무협약</b>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경제이사회 차기 의장국인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KMI-AEC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협력주간 연계 방안 및 한-북극권 국가 산업체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li> </ul> </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C 활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C는 EU, AC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AC와 유일하게 MOU 체결한 기관으로서 북극투자프로토콜(Arctic Investment Protocol)을 개발했으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 추진</li> </ul> </li> <li>□ 5월 KoARC-AEC MOU 체결 기점으로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ARC/KMI 국내 기업 사전 수요 조사 후 APW-AEC B2B 세션 구성 제안 예정</li> </ul> </li> <li>□ 북극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진행 현황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C, 핀란드, 일본 등 주도로 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펀딩이 부족한 실정</li> </ul> </li> </ul>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⑤	<b>그라나플(Granaefl) 업무협의</b>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이슬란드 소형 전기 어선 협력 사업 진척 상황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협의</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MOU 체결 방안 세부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는 한국기업, 그라나플은 아이슬란드 기업을 대표기관으로 양 기관 MOU 체결 협의</li> <li>- 단, MOU 문건 내 양국 기업명 명시하되,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li> </ul> </li> <li>□ MOU 이후 협력 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슬란드 기업 리스트 공유 예정</li> <li>- KMI 및 우리기업의 출장을 통해 현장(아이슬란드 전기 기반 소형 어선) 방문 및 기술 협력 가능성 구체적 논의를 제안했으며, 실질 실무진 및 기술자와 연결 가능</li> <li>- 소형 어선을 포함한 전력 기반 소형 선박을 타겟으로 공동 개발 제안</li> </ul> </li> </ul>
업무⑥	<b>북극이사회(AC) 업무협의</b>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NAC 소개 및 향후 AC-한 협력 방안 모색</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북극관리(SAO) 정기회의 등 북극이사회 차원 회의 준비와 대응, 각 의장 대사 조언 제공, 대외 연락, 옵서버 연락 등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인원 (노르웨이 측) : Mathieu Parker, Director(Arctic Council Secretariat), Reagan Aylmer, Advisor(Arctic Council Secretariat)</li> <li>- 북극이사회 사무국은 현 의장국 및 차기 의장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현재 16명이 근무 중</li> <li>- 작년 3월 3일부로 북극이사회 회원국 총의에 의한 북극이사회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식 웹사이트 관리 등 사무국 업무의 일부도 중지</li> <li>- 우리 측은 KoNAC 등 북극이사회 차원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그간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재개되고 있는 북극이사회 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Reagan Aylmer 자문관과 추후 연락을 통해 정보 공유 예정</li> </ul> </li> </ul>

